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8.29.(월) 10:30, 조중훈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2022년 8월 30일 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 비전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은 통일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 온 다자 국제회의로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20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통일 비전,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 번영, 비핵화와 북한 변화 전망, 정책 연속성 확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별 주제와 참석자 등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청년 포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 홈페이지

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 2030 세대 50여 명과 함께 2022 청년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며, 통일부 차관도 행사에 참석하여 2030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고, 내일은 앞서 설명드린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장관은 수요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금요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담대한 구상 관계된 건데요. 8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에 권영세 장관께서 탈북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면담에 참석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던데,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담대한 구상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권영세 장관이 답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담대한 구상 발표에 보면 북한 인권 관련된 게 들어 있다거나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게 발표된 적은 없거든요.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 문제 또는 인권 분야가 어떤 식으로 포함돼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관련한 보도를 보았고요.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께서 언급한 내용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등 북한 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담대한 구상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식량 및 농업 그리고 식수·위생, 보건·의료 등 민생 개선 사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참여하여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거두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 한미연합훈련 2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북한 동향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동향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언론과 공유할 만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직까지 ***

<답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어적 훈련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연계된 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러시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은 글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하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한 언론에서 '북한이 인도에서 20만 포대의 쌀을 수입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식량난을 겪는 게 아니냐?'라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실 확인하신 부분이나 파악되신 부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핵실험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연평균 80만 t 내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외부 도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 상황과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북한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부족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인도에서의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